10.15686/fkl.2026..68.406 OPEN ACCESS

2000년대 초 한국 로맨스 소설의 ‘후회남’과 여성 복수 서사

손진원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목차

1 서론
2 가족주의의 내면화와 기혼 여성의 정체성
3 분노의 발견, 이혼이라는 복수
4 응보적 심판과 지위 ‘탈환’의 서사
5 결론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3S1A5B5A17086244)

국문초록

이 논문은 2000년대 초 한국 로맨스 소설에 등장하는 '후회남'이라는 인물형과 여성 복수 서사를 분석하였다. 후회남 로맨스는 당대 기혼 여성의 사회구조적 취약성을 다루어냈다. 가족주의를 내면화하고 각종 의무를 짊어진 아내로서의 정체성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던 2000년대 기혼 여성에게, 남자 주인공의 배반은 사적인 관계의 신뢰를 깨뜨리는 것을 넘어 취약한 여성의 지위를 흔드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 글은 먼저 '후회남' 인물형이 주목받게 된 계기였던, 이지환의 『이혼의 조건』(2002)이라는 작품 속 여성의 분노를 탐구하였다. 이 작품은 여성의 분노를 이혼이라는 형태로 표현해냈으며, 당대 독자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반면 『이혼의 조건』 이후에 등장한 후회남 로맨스는 그 분노를 전략적으로 감추고 용서를 통한 아내 지위 탈환의 서사로 변모시킨다. 이 분노와 용서의 의미는 무엇인지 마사 누스바움의 논의에 기대어 분석하면, 용서는 부당 행위자의 자기비하적 참회를 요구하는 통제적인 행위로 복수의 윤리와 병치한다. 즉, 후회남 로맨스는 가족 내 아내로서의 헌신을 정당하게 평가받고 남편에 대한 통제력을 탈환하고자 하는 당대 기혼 여성의 욕망을 서사화한 여성 복수 서사였다.

국문핵심어: 로맨스, 후회남, 여성복수서사, 웹소설

1 서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발간한 2024년 웹소설 산업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웹소설 IP(Intellectual Property, 지적재산권)를 기반으로 한 웹툰, 드라마, 영화 등의 2차 창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1] 영상화된 작품은 글로벌 OTT 서비스를 통해 유통되면서 웹소설 IP 기반 콘텐츠의 파급력이 확대되는 상

1 출판정책연구실, "[조사연구 2024-04] 2024년 웹소설 산업 현황 실태조사", 2025.04.03., https://www.kpipa.or.kr/p/g3_1/143, 최종접속일: 2026.06.30.

황이다. 2025년, 동명의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중증외상센터〉는 넷플릭스에 공개된 이후 비영어권 TV쇼 부문 1위를 차지하며 주목받기도 했다.[2] 특히 웹소설에서 웹툰으로의 2차 창작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형 웹만화 콘텐츠인 웹툰과 웹툰 플랫폼 시스템이 글로벌화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국내외로 독자층을 넓혀가는 추세다.

웹소설 원작 작품이 웹툰과 드라마로 제작되어 화제를 모으고 있는 사례로, 알파타르트 작가의 로맨스판타지 장르 웹소설인『재혼황후』를 꼽을 수 있다. 한국 포탈 웹사이트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네이버 웹소설'에서 2018년부터 연재되기 시작해 2020년 완결된 기준으로 누적 조회수 7000만 건, 웹툰은 2024년 기준 국내외 누적 조회수 26만 건에 도달한 이 작품은 현재 드라마로 제작되어 2026년 중 글로벌 OTT 서비스 '디즈니+'에 공개될 예정이다.[3] 이 작품의 내용은 이렇다. 주인공인 황후 '나비에'는 변심한 황제 '소비에슈'와 이혼한 후 옆 나라 황제와 재혼하게 된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나비에는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 한편, 소비에슈와 외도한 '라스타'는 몰락의 길을 걷는다. 소비에슈는 뒤늦게 자기 행동을 후회하며 나비에를 그리워하지만, 그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비에가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어가며 작품은 막을 내린다.

『재혼황후』의 소비에슈와 같은 캐릭터를 일컫는 말이 있다. 바로 '후회남'이다.[4] 보통 '후회'라는 키워드는, 연애 서사를 다루는 장르 내에서 한 인물이 친밀한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후회하는 내용이 전개되었을 때 사용된다.[5]『재혼황후』의 사례처럼 후회남이 한국 로맨스 장르[6] 내에서 자주 거론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대중적인 사랑을 받게 되는 현시점에, 후회남이

2 "TUDUM BY NETFLIX", https://www.netflix.com/tudum/top10/tv-non-english?week=2025-02-02, 최종접속일: 2026.06.30.

3 이윤정,「누적 조회수 7천만 건… 인기 웹소설 '재혼 황후' 연재 마무리」,『이데일리』, 2020.05.06., https://bit.ly/3ONKolr, 최종접속일: 2026.06.30. ; 강주일,「신민아, 주지훈, 이종석… '누적 조회수 26억회' 재혼황후, 라인업 공개」,『스포츠경향』, 2025.04.14., https://bit.ly/4riDfqT, 최종접속일: 2026.06.30.

4 해당 용어를 사용한 인터넷 기사 역시 확인할 수 있다. 연휘선,「주지훈, 신민아 집착 후회남 되나 '재혼황후' 제안 받고 검토 중」,『OSEN』, 2025.01.24., https://bit.ly/4swI2Gc, 최종접속일: 2026.06.30.

등장하는 로맨스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후회남이 등장하는 로맨스는 크게 두 가지로 서사의 방향이 나뉜다. 첫째는 『재혼황후』나 2024년에 드라마화되어 tvN에서 방영되기도 했던 『내 남편과 결혼해줘』(성소작, 2020)의 경우처럼 남편의 외도와 나쁜 행동을 참지 않고 이혼하며, 그에게 능동적으로 응징을 가하는 서사다. 둘째는 후회남의 참회를 받아들여 그와 다시 재결합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부류의 후회남 로맨스는 이 글이 본문에서 소개할 2000년대의 작품들 이후에도, 『미로』(박수정, 2013), 『연정을 품다, 감히』(김빠, 2016) 등 꾸준하게 창작되고 읽힌 바 있다. 무엇보다 『울어봐, 빌어도 좋고』(솔체, 2019), 『당신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2019)와 같은 작품들은 2026년 8월 현재, 각각 누적 5500만 다운로드 수와 1억뷰 수를 기록하였으며 모두 웹툰화되는 등 독자들의 큰 관심을 받은 바 있다.

후회남 로맨스의 첫 번째 경우를 복수와 응징의 서사로, 두 번째를 자애로운 용서의 서사 혹은 타협적 서사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후회남에 대한 필자의 비평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후회남이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는 것에 대해 로맨스

---

5 후회하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부류의 이야기군에 대해서는 '후회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남녀 주인공이 등장하는 로맨스, 로맨스판타지와 같은 장르에서는 '후회남'이, BL 장르에서는 '후회공', '후회수' 등의 용어가 사용되곤 한다. 종종 '후회녀'라는 용어도 사용되기는 하나 '후회남'이나 '후회공'에 비하면 그 빈도는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2026년 6월 구글 검색 결과 '후회물'은 약 1030만 개, '후회남'은 약 605만 개, '후회공'은 약 330만 개, '후회수'는 약 266만 개, '후회녀'는 약 139만 개가 검색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이 글에서 지칭하는 '로맨스 (장르)'는 두 인물의 연애사라는 광의의 로맨스가 아닌,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에서 특정한 공식과 관습이 형성되기 시작했던, 두 남녀의 연애사를 다룬 협의의 '로맨스 소설'을 뜻한다. 그 시작은 '로맨스의 대명사'로 전 세계에 알려진 '할리퀸(Harlequin)' 로맨스의 공식 라이선스 판본을 출간하고 있던 출판사, 신영미디어에서 '로맨스 소설 현상공모'로 본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해당 공모전 당선작이 매년 한두 작품씩만 출간되다가, '영언문화사'(2000년), '아름다운날'(2001년), '눈과마음(스쿨타운)'(2002년), '현대문화센터'(2002년) 등 로맨스 소설을 주로 펴내는 출판사가 등장하면서 다양한 작품이 대거 출간되기 시작했다. 엄밀히 말하자면 서두에서 언급한 『재혼황후』는 현재 로맨스판타지 장르로 구분이 되지만, 로맨스판타지 장르가 중세 유럽 판타지를 배경으로 하되 로맨스 장르의 문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작품이 다수인 점, 『재혼황후』 역시 '후회남' 코드와 '후회남'의 관습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예로 제시하였다.

독자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후회남이 여자 주인공의 '발닦개'가 되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7] 다시 말해 후회남 로맨스의 여자 주인공이 능동적으로 응징을 하지 않더라도, 후회남 로맨스의 독자들은 후회남을 "무릎꿇림으로써 복수를 실현하는 것"이라 해석한다는 것이다.[8]

필자가 이전에 쓴 비평에서는 후회남의 개념을 소개함과 동시에 여성 복수서사로 후회남 로맨스를 읽고 있으나, 분노의 대상인 후회남을 향한 '여성적' 분노 방식에 대한 문제만 다루었다. 이 논문은 후회남 로맨스가 일종의 여성 복수서사라는 의견에서 더 나아가, 이러한 플롯이 언제 형성되었으며 그 복수 유발의 이유라 할 수 있는 여성(주인공)의 분노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한다. 로맨스 독자들이 후회남의 참회에 대한 여자 주인공의 용서를 일종의 복수의 과정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이러한 플롯이 하나의 장르적 관습으로 굳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능동적인 응징 혹은 '참회와 용서'의 탈을 쓴 간접적인 복수의 방식이 관습이 된 사회문화적 배경과 장르 내부적 흐름을 이 논문은 추적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후회남'이 언제부터 로맨스 장르 안에 등장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후회남, 혹은 이와 인접한 용어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검색 전문 웹사이트 '구글'을 통해 검색해 보면, 해당 용어들의 사용은 2010년대 전후로 확인된다. '후회물'이라는 용어가 인터넷상에서 처음 사용된 사례는 2009년으로 확인된다.[9] 해당 게시글은 로맨스 소설을 추천하는 내용으로, '후회물'이라 지칭하는 로맨스 작품의 줄거리를 보았을 때, 여자 주인공과의 갈등 속에서 상처를 입히는 남자 주인공이 등장한다고 설명하고 있다.[10] 후회하는 캐릭터를 지칭하는 용어 자체는 2010년, BL 장르와 관련된 '후회공'이 확인된다.[11] 후회남이

7 손진원, 「여자들의 '차가운 분노'와 웹소설에서의 복수 서사」, 『여/성이론』 제48호, 도서출판여이연, 2023, 133-142쪽.

8 위의 글, 136쪽.

9 박씨, "로맨스소설추천", 2009.08.09., https://bit.ly/4d07v6c, 최종접속일: 2026.06.30.

10 '후회물'로 소개된 작품은, 하얀여우 작가의 『상속된 계약』(2005, 발해)과 인터넷으로만 연재된 것으로 보이는 이코신짱 작가의 「지배자」이다.

인터넷에서 사용된 것은 2011년경으로 확인되는데, 해당 블로그 게시글에서는 2006년에 최초 출판된 로맨스 소설에 대한 감상에서 해당 단어가 사용되었다.[12] 후회물, 후회남 등의 용어가 가리키는 작품의 연도나, 해당 용어가 통용되기 이전에 이미 해당 서사가 다량 창작되고 읽혔음을 고려한다면 '후회하는 인물형'은 로맨스 혹은 BL 장르가 인터넷 연재나 도서 대여점, 개인 동인지 형태로 유통되던 2000년대에 이미 널리 읽히고 창작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2000년대에 후회남이 등장하는 로맨스 작품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13] 보통 로맨스에서 후회남은 여성 주인공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저버린 인물로 그려진다. 그런데 2000년대 후회남 로맨스에서는, 지금의 후회남 로맨스와 다르게 거의 대부분 기혼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함과 동시에, 후회남이 단순히 여자 주인공과의 사적 관계의 신뢰를 깨뜨리는 존재로만 그려지지 않는다는 것에 이 글은 주목한다. 텍스트에 재현된 양상 및 일부 독자 반응에서 미루어 볼 때, 후회남 로맨스 속 남자 주인공의 배반은 사회구조적으로 취약한 기

---

11 '후회공'이 등장하는 작품 추천, 혹은 '후회공과 후회수'가 어떤 용어인지 설명하는 게시글을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요메, "추천하는 후회공 소설 1", 2010.6.13., https://m.blog.naver.com/hanayome82/140108703098, 최종접속일: 2026.06.30.; 사과맛변기, "[칼럼] 너에게 BL을 알려주마-(2) 용어편", 2010.03.24., https://bbs.ruliweb.com/family/211/board/300074/read/10398957, 최종접속일: 2026.06.30.;
게시글에서 추천된 작품 대부분 2000년대 BL 연재 웹 페이지나, 개인 홈페이지 등에 연재된 것으로 보인다. 그중 한 작품인 '데드 오브 윈터'는 2015년 당시 인터넷에 연재된 BL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한 데 따른 재산상 손해를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례를 받은 작품이기도 하다. 관련 인터넷 기사에 따르면 해당 작품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개인 홈페이지에 연재되었다고 표기되어 있다.
강승연, 「[法 톡!] 대법원, 동성애 다룬 소설 '표절' 첫 판결…소설 속 내용은?」, 『헤럴드경제』, 2015.03.27., https://biz.heraldcorp.com/article/434312, 최종접속일: 2026.06.30.

12 해당 게시글은 김다인 작가의 『절애』(2006, 휴피스)에 대한 감상을 남기고 있다.
세잎클로버 나미, "절애 (김다인/현대물로맨스-이북)", 2011.08.03., https://blog.naver.com/myunicorn/120136004612, 최종접속일: 2026.06.30.

13 BL의 경우, 대부분 종이책으로 출간되지 않고 인터넷의 폐쇄적인 웹사이트를 통해서 주로 유통되어 현재 작품과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라, 연구 대상에 제외하였다.

혼 여성의 지위를 흔드는 잠재력을 보인다. 그래서 남자 주인공이 비로소 자신을 굽히고 후회남이 되어 용서를 구한다는 후회남 로맨스는, 불안정한 지위 속에서 정당한 자신의 언어를 갖지 못한 기혼 여성의 욕망을 서사화한 텍스트이자, 그 욕망을 일시적으로 정당화하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바로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후회남 로맨스를 분석하고자 한다.

2000년대 기혼 여성의 지위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에서 '가족'과 여성이 맺는 관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한국 여성의 생애 경험은 대개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한국의 가족주의적 정서와 관련이 깊다.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한국의 가족을 바라본 다수의 연구는 한국의 가족 구성이 외형적으로는 핵가족의 틀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가족에 대한 의식 자체는 혈연 중심의 직계 가족의 규범을 따르고 있으며, 가부장적 가족주의가 중요한 원리로 작동하고 있음을 지적한다.[14] 여기서 가족주의란, "개인들의 행위와 태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족집단의 유지와 기능이 최우선의 준거가 되는 가치체계"로 정리할 수 있다.[15] 게다가 한국 사회에서는 가족주의가 가치체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가족법[16]에서 호주제[17]와 같이 젠더 정치로 구사되고 있기도 했다.

당시 기혼 여성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가족을 유지하기 위한 의무를 담당하던 존재로 여겨졌다. 1990년대에 들어 한국 사회의 가족 구조와 가족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찾아오고, 높아진 여성 인권과 더불어 성별 분업화에 대해 반발이

14 이영자, 「한국사회의 가족주의와 페미니즘」, 『현상과 인식』 제23집 3호, 한국인문사회과학회, 1999, 107-122쪽; 이재경, 『가족의 이름으로』, 또하나의문화, 2003, 109-132쪽; 김혜영, 「한국의 가족주의와 여성 인권」, 『아시아여성연구』 제42호, 아시아여성연구소, 2003, 9-48쪽; 백진아, 「한국 기혼여성의 가족 경험-가족주의와 변형적 친밀성의 결합」, 『담론 201』 제10집 3호, 한국사회역사학회, 2007, 241-269쪽 참조.

15 백진아, 위의 글, 246쪽.

16 민법 4편 '친족'과 5편 '상속'에 관한 법률 조항을 일컫는다.

17 1989년 가족법 3차 개정 과정에서 호주제 폐지와 존속을 둘러싸고 열띤 공방이 벌어진 이후, 2000년대에는 사회 전체의 중요 이슈가 되었다. 호주제도는 가족 가부장제의 논리를 내장하고 있어, 한국 사회의 젠더 재생산 체계의 한 지점으로 작동하였다. 양현아, 「호주제도의 젠더 정치: 젠더 생산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16집 1호, 한국여성학회, 2000, 65-93쪽 참조.

일어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부부 중심의 핵가족 형태 속에서도 여전히 가부장적 질서와 혈연적 연결망에 여성들이 의존한다는 점에서, 한국은 서구 근대의 부부 중심 가족과 구별되는 가족 구성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00년대 여성이 가족 안에서 어떤 위치에 놓여 있었는지, 그리고 기혼 여성이 자신을 어떤 존재로 정체화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장의 작업은 후회남 로맨스 서사화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분노의 준거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작업을 위해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통계와 질적 사례를 토대로 진행되었던 연구를 참조하여 살펴볼 예정이다.

3장과 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후회남이 등장하는 로맨스 작품을 살펴보기 시작한다. 3장에서는 2000년대 초, 후회남이라는 인물형에 관심이 증폭된 계기였던 이지환 작가의 『이혼의 조건』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이 작품은 '로망띠끄'라는 로맨스 인터넷 소설 웹사이트에서 2002년에 연재가 된 이후 종이책으로 출간되었다.[18] 당시 로맨스 소설 작품의 대다수가 PC통신 천리안의 동호회 '천일야화'[19] 그리고 신영미디어 웹 게시판이나 로망띠끄 등 온라인 소설 연재 전문 웹사이트나 작가의 개인 홈페이지 등에 먼저 연재된 이후 출간되곤 했다.[20] 현재 출간된 작품의 연재 글은 찾아볼 수 없으나, 로망띠끄 등 일부 게시판에는 독자와 작

18 이 논문은 종이책 초판본을 참조하였다. 이지환, 『이혼의 조건』 1-2, 현대문화센터, 2002.

19 천리안 로맨스 소설 동호회 '천일야화'에 대한 정보는 아래 기사에서 찾을 수 있다. 「[동호회를 찾아서] 천리안 로맨스 소설 '천일야화'」, 『한국경제』, 2000.07.1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0257507?sid=101, 최종접속일: 2026.06.30.

20 예를 들어, TV드라마 〈경성 스캔들〉, 〈커피 프린스 1호점〉의 원작을 쓴 이선미 작가의 경우, "제 4회 (주)신영미디어 로맨스소설 공모에서 '아란야의 요정'으로 당선하며 로맨스 작가로 데뷔했"으며, "PC통신 천리안에 『아라사의 서우여』를 비롯하여 『라스트 지세븐』, 『10일 간의 계약』등을 인기리에 연재했"다는 내용으로 저자 소개 약력을 작성한 바 있다. 공모전 당선이나 관련 웹 게시판에 연재 후 출판한 이력을 당시로서는 '로맨스 소설 작가 데뷔'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존재했던 로맨스 및 인터넷 연재 웹 사이트가 대부분 폐쇄되었고, 출간된 작품의 경우 웹 연재분은 삭제되었기 때문에 어떤 작품이 언제, 어떤 연재처에서 연재되었는지 확인이 현재 어려운 상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종이책으로 출판된 연도를 기준으로 작성, 참조하였음을 덧붙여둔다. "yes24",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89353, 최종접속일: 2026.06.30.

가가 인터넷상에서 주고받은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이혼의 조건』 연재 당시, 로망띠끄 게시판에서 오갔던 창작자와 독자의 반응을 살펴보며 당대 기혼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취약성 및 이혼 여성에 대한 사회의 이중적인 잣대 때문에 겪게 되는 사회문화적 억압의 현실을 창작자와 독자 모두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분노의 결과로『이혼의 조건』이라는 작품의 서사화 및 로맨스 팬덤의 열성적인 지지로 이어졌음을 밝힐 것이다.

『이혼의 조건』과 같은 능동적 응징의 서사는 이미 1998년 SBS에서 방영된 리메이크 드라마「청춘의 덫」이라는 멜로드라마의 흥행에서 확인할 수 있듯, 90년대 말-2000년대 기혼 여성의 주류적인 욕망을 담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로맨스 소설장 안에서는 '참회와 용서'의 서사가 등장한다. 이혼을 통한 복수의 서사를 그려냈던『이혼의 조건』과 다르게, 후회남 로맨스는 여자 주인공이 후회하는 남자 주인공과 재결합하는 결말을 그려낸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이혼의 조건』의 인기에 힘입어 작품의 독자 중 한 명이 작성한 팬픽션「재혼의 조건」의 달라진 결말을 점검하고, 2000년대 후회남 로맨스의 관습을 살펴볼 예정이다.

그리하여 4장에서는「재혼의 조건」 및 다양한 작가의 작품들을 선별하여 결말을 분석하고 이것이 후회남 로맨스의 장르적 관습으로 굳어지게 되었음을 설명할 것이다. 그리하여『이혼의 조건』과 같이 아내의 자리를 거부하고 그 자리를 이탈하는 형태의 복수와, 아내의 지위를 인정받고 가정에서의 통제를 손에 쥐는 '탈환적 복수'라는 두 서사가 공존하게 되었음을 논증할 것이다. 로맨스 소설 팬덤이 생각한 이 탈환적 복수는 가부장적 결혼 질서라는 구조를 향한 타협임이 분명하지만, 아내의 지위를 인정받고 도덕적 우위 속에서 남편에 대한 통제력을 얻는 것으로부터의 카타르시스를 구현한 서사화된 복수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다. 그리하여 2000년대 로맨스 장르 안에서는 후회남을 둘러싼 여성 복수 서사가 등장하였음을 논하고자 한다.

2 가족주의의 내면화와 기혼 여성의 정체성

한국에서는 핵가족화에 관한 논의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가족에 대한 문제가 거론

되기 시작했다. 산업화 진행에 따라 핵가족화가 진행된다고 여겨지던 서구의 이론에 대한 반박은 곧, 전통 사회가 지녔던 가족 논리의 연장선에서 현대 한국이 가진 가족 구성의 특수성에 관한 논의로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한국의 가족이 형태적으로는 핵가족일지는 몰라도 그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전통적인 직계 가족의 원리, 즉 가족주의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는 연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21]

가족주의는 대체로 유교적 문화 전통에서 기인하여, 식민 경험이나 분단 상황, 그리고 군사정권 아래에서 이루어진 산업화의 가속화와 같은 사회적 혼란과 개인적 불안 속에서 심화한 것이라 설명된다. 직계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가 생존의 노력과 이익 극대화의 움직임을 보인 결과라는 것이다.[22] 그 결과, 가족은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주요한 공동체가 되었으며 이는 역설적으로 사회 지탱에 중요한 역할들을 이 공동체가 모두 끌어안게 되었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장경섭은 한국의 경제·사회적 기본 질서를 '가족자유주의'로 개념화하고, 한국 사회 속에서 가족은 "개인으로 환원되지 않는 본원적 집체로" 작동하는 것으로, "아래로는 개인에 대해 위로는 국가와 시장경제에 대해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조합적 행위체'로서 존재하며 경제생산과 사회재생산 모두의 기본 단위로 작용한다"고 설명한다.[23] 그는 그동안의 한국 사회가 생산의 극대화를 위해 재생산의 영역, 즉 가사와 돌봄의 영역부터 자녀 교육·의료·노인 복지 등에

---

21 안병철은 가구 구성 현황 통계 자료를 통해 산업화와 가족변동을 단순하게 연결지을 수 없음을 논하였다. 한편 장현섭은, 핵가족화를 논하기 위해서는 가구 구성의 변동보다 가족에 대한 정서 또는 정신적 유대의 문제를 살펴야 하며, 당시 한국 사회는 전통 가족주의의 붕괴가 아닌 재강화의 원리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안병철, 「산업화와 핵가족화에 관한 비판적 고찰: 가족형태를 중심으로」, 『생활과학논집』 제2호,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1988, 103-110쪽; 장현섭, 「한국 사회는 핵가족화하고 있는가」,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1993, 191-195쪽.

22 이영자, 앞의 글, 110-112쪽; 김혜영, 앞의 글, 10-14쪽; 백진아, 앞의 글, 246-247쪽 참조.

23 장경섭은 한국이 가족중심적 자유주의에 기초하고 있다며, 개인의 확장으로서의 가족이 경제생산과 사회재생산을 포괄적으로 관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정의를 내린다. 장경섭, 『내일의 종언?-가족자유주의와 사회재생산 위기』, 집문당, 2018, 9-17쪽.

이르는 부분에 이르기까지의 광범한 영역을 확대(직계)가족의 담당으로 돌려냈다고 지적한다. 즉, 국가의 정치·경제적 책임마저 사적 가족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가족화된 의무의 주된 담당자로 여성이 지목된다는 것이다. 사회 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여성은 과중한 가족의 의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가족주의는 여성을 가족에 예속시켜 일차적으로는 가족을 지탱하고, 가족주의의 관념을 재생산하는 주체로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게다가 부계 혈통 세습의 가부장제 구조 안에서 권력을 가지지 못하는 기혼 여성은, 남편을 비롯한 남성 가족에 의한 관계적 상황 속에서 아내 혹은 어머니로서의 일시적인 권력을 획득하게 될 뿐이다.[24]

가족주의의 관념은 평등과 개인주의라는 근대적 가치를 학습하고 이를 추구하려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여성들, 특히 기혼 여성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에는 가족주의의 이념을 지지하고 이를 재구성하려는 담론이 사회적으로 만연하기도 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이혼율이 증가하고 경제 위기로 인해 대량 실업 사태가 벌어지는 등, 가족 구성에 변동이 크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를 '가족 해체'의 위기로 본 대중적인 언론에서는 가족주의 담론을 재구성하여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예를 들어 1997년 경제 위기는 남편의 위기이기에 남편의 '기 살리기', 즉 남성의 성역할을 회복하게끔 해야 한다는 담론이 등장했던 것처럼 말이다.[25] 경제 위기 속에서 가족의 연대가 강조되는 가운데, 2000년대 초반에는 여성의 성평등 요구가 가족애와 남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묘사되는 경우도 있었다.[26]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기혼 여성들은 근대적 가치 및 핵가족의 이상을 추구하면서도, 가족주의의 관념 아래에서 가족의 의무를 지켜내는 아내이자 며느리, 어머니로 스스로를 정체화해야만 했다. 가족주의의 관념과 핵가족의 이상 사

24 이영자, 앞의 글, 115-116쪽.

25 박혜경, 「경제위기시 가족주의 담론의 재구성과 성평등 담론의 한계」, 한국여성학, 제27집 3호, 한국여성학회, 2011, 82-86쪽.

26 박혜경, 위의 글, 87쪽.

이에서 갈등을 경험하는 한편,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체성 간의 전략적 협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30대 도시 중산층 주부들의 사례를 선별해 정리한 이재경은 기혼 여성이 지닌 다중적 정체성, 즉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며느리로서의 정체성 사이의 모순을 발견하며 이를 소개한 바가 있다.[27] 당시 여성들은 부부간의 친밀성을 결혼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보았다. 그런데 그 친밀성의 확인은 가사 분담의 문제나 시집-친정 가족과의 관계와 같은 실질적인 가족 의무의 책임을 다하느냐의 문제로 판단하고 있었다. 그래서 결혼생활이 애정에 기반한다는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편이 집안일과 같은 가족을 돌보는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 결혼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이라 여기기도 했다.[28]

대학에서 본격적으로 양성평등 교육을 접한 30-40대 기혼 여성의 사례를 소개한 백진아 역시, 서구 사회에서 말하는 부부 관계 내의 사랑과 다르게 한국의 부부 관계는 가족주의적 속성을 띠고 있다고 설명한다. 사랑에 근거한 친밀성이 결혼을 유지하기 위한 이념적 장치이긴 하나, 실질적으로 감정적 몰입이나 열정적 성애보다는 가족에 대한 책임 의식을 친밀성의 근거로 판단한다는 것이다.[29] 기혼 여성이 가족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사랑의 증거로 인식하게 된 것은 그가 이미 가족주의를 내면화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여성의 정체성 자체가 가족, 그것도 아내와 어머니 혹은 며느리로 묶여버렸음을 뜻한다.

아내 정체성은 며느리 정체성, 그리고 어머니 정체성과 경합을 벌인다. 부계가족 체제에서 아내 정체성과 며느리 정체성은 서로 모순된 관계에 있으나, 시부모와의 관계에 따라 기혼 여성은 억압만이 아닌 보상을 얻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기혼 여성은 가족 내 자기 지위의 안정성을 위해 며느리 정체성과도 협상할 수밖에 없다.[30] 특히 이것은 자녀 존재 유무와도 관련이 깊다. 흥미로운 점은, 부부간의 친밀성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던 여성들은 자녀가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도 생각했다는 것이다. 자녀(특히 아들)의 출산

27 이재경, 앞의 책, 133-150쪽 참조.
28 이재경, 위의 책, 137-141쪽.
29 백진아, 앞의 글, 254-260쪽.
30 이재경, 앞의 책, 146-149쪽.

과 양육이, 가계 계승자의 어머니로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었고, 가족 안정과 부부 관계의 친밀성을 보장받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모성과 부부 친밀성 사이에서 여성들은 갈등적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것은 아내와 어머니 정체성 간의 갈등에 대한 협상이 불안정한 것이기도 했다.[31]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앞으로 살펴볼 후회남 로맨스의 여자 주인공은 '어머니' 정체성이 부각되지 않는다.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한 여성은 가족 내 지위의 안정성을 획득하기 때문에, 기혼 여성의 불안정한 위치를 폭로하고 이에 관한 분노를 표출해 내는 후회남 로맨스에서는 대개 자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머니라는 확고한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고 그저 아내와 며느리로서 자신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여자 주인공에게 결혼의 울타리는, 남편이라는 가부장에 의해 금방이라도 무너질 수 있는 불안정한 경계와 다름없다. 결혼이라는 '얄팍한' 경계를 벗어나는 순간 여성은 사회·문화적 지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적 위기마저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1990년대 가족 구성의 다양화와 함께 97년 외환위기 이후 이혼과 독신가정이 늘어나 여성 가구주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여성 빈곤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김혜영·이은주·윤홍식의 연구는 빈곤 인구에서 여성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빈곤 가정에서 성별이 특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한국 사회가 가부장적인 남성 부양 체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남성 부양 가족의 해체 시 여성은 경제적 독립자로 전환되기 어렵거나, 전환되더라도 불안정한 임시직·일용직 노동에 종사하게 되어 여성들이 빈곤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32] 그중에서도 이혼을 통해 중산층에서

31 이재경, 위의 책, 141-145쪽; 백진아, 앞의 글, 261-263쪽.

32 김혜영·이은주·윤홍식, 「여성빈곤의 구조적 요인과 빈곤의 여성화」, 『아시아여성연구』 제44권 1호, 아시아여성연구소, 2005, 5-51쪽; 이와 더불어, 이혼을 전후로 한 여성의 직업과 소득 변화를 연구한 자료에서는, 기존 노동시장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여성이 비정규직, 비정형의 노동에 종사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육의 책임자로 지목된 여성들은 더욱 빈곤의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김혜영·변화순·윤홍식, 「여성의 이혼과 빈곤: 직업과 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제20권 2호, 한국가족학회, 2008, 37-63쪽.

빈곤층으로 계층적 '추락'을 경험한 여성들은 달라진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수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 아내와 어머니의 정체성과 노동자,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이 서로 갈등하고 협상하는 과정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다.[33]

이러한 배경을 미루어 볼 때 후회남 로맨스의 남자 주인공이 저지르는 '후회할 짓', 즉 여자 주인공을 배신하는 행위는 당시 독자들에게는 사적인 감정의 배반을 넘어, 가족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자 여성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들의 분노는 가족의 책무를 함께하지 않는 남자 주인공에 대한 불만이면서도, 남자 주인공과의 비대칭적 권력으로 인해 결혼이라는 울타리의 바깥으로 언제든 밀려날 수 있는 여성 주인공의 불안정한 위치에 대한 현실적인 공감이었던 것이다.

3 분노의 발견, 이혼이라는 복수

앞으로 이 글에서 다룰 후회남 로맨스를 보다 심도 있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후회할 일' 즉 부당한 행위를 저지르는 남자 주인공과 그 행위를 용서하는 여자 주인공 사이의 관계 및 감정적 분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로맨스 장르, 특히 한국 로맨스 소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할리퀸 로맨스에서는, 남성성의 화신인 남자 주인공과 여성성의 화신인 여자 주인공이 사랑을 이해하고 행하는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그려진다.

할리퀸 로맨스는 한국에 해적판과 라이선스판으로 유입되었다. 1979년부터 한국에 번역되어 1980년대 초중반까지 적극적으로 10대 여학생들에게 읽힌 삼중당 문고의 '하이틴 로맨스' 시리즈는 할리퀸 로맨스의 해적판 중역본으로, 원작이 대부분 1970년대에 출판되었다. "할리퀸 로맨스는 당대 성교육이 그려내던 남성상과 여성상을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는 표상으로 상상하게끔 만든 매체였"다.[34] 1980년대 하이틴 잡지의 기사들이 시종일관 남성을 성적 충동에 약한,

33 정미숙, 「성별화된 빈곤과 사회적 배제: 저소득 여성가구주의 빈곤대응 방식을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제25권 2호, 한국여성연구원, 2008, 18-25쪽.

34 손진원, 「1980년대 하이틴 성교육 콘텐츠와 할리퀸 로맨스 연구」, 『한국학연구』 제58호,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0, 531쪽.

그래서 여성들에게는 '위험한 존재'로 명명했던 것과 동일하게, 당시 번역된 할리퀸의 남자 주인공은 매력적이면서도 야만적이기 때문에 위험한 인물로 그려지곤 했다.[35]

로맨스 소설의 작법을 소개한 진산 작가는, '위험한 남자들, 용감한 여자들'이라는 할리퀸 로맨스를 광고하는 유명한 문구 자체가 장르 로맨스의 핵심을 찌르고 있다고 설명한다. "로맨스 소설의 남자들은 여성의 입장에서 이해 불가능한 위험 요소로서 등장하지만 여주인공들은 그 남자들에게 용기 있게 도전하거나 저항함으로써 남성의 세계를 마침내 굴복시킨다"는 것이다.[36] 현대 사회의 낭만적 사랑에 관해 설명한 앤서니 기든스 역시, 할리퀸과 같은 현대 로맨스 서사에서 나타나는 "정복의 모티브"란, "성적인 정복을 의미하는 남성판 정복"과 다른, "자신에게 무관심하고 냉담하게 대하거나 또는 공공연히 적대시하던 남자의 닫힌 마음(heart)을 마침내 열고 들어가 그것을 누그러뜨"리는 형태라면서 "사랑하는 대상의 고집스런 남성성을 길들이고 완화하고 변화"시키는 것이라 설명한다.[37]

요컨대 위험하고 야만적이며 성적 충동에 약한 남성의 사랑 방식은, 섬세하고 사려 깊으며 온정적인 여성의 사랑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이해되곤 했다. 할리퀸 로맨스 속 남자 주인공은 여성적인 사랑 방식인 '낭만적 사랑'에 익숙하지 않거나 알지 못하는 존재다. 이런 그들을 낭만적 사랑의 방식으로, 그리고 그러한 사랑의 방식을 학습한 인간으로 '교화' 혹은 '정복'하여 결말을 맺는 것이 작품의 주요한 플롯을 차지한다.

다시 말하자면, 교화와 여성적 정복의 과정은 인내가 필요하다. 남자 주인공의 냉담한 행동과 거친 언사에도, 작은 사랑의 불씨를 믿고 온화함과 부드러움으로 무장한 여성적인 애정의 방식을 이해하도록 지켜보며 기다리는 것이 로맨스의 주요 문법이었다. 할리퀸 로맨스의 공식과 관습을 이어받은 한국의 로맨스 역

35 위의 글, 531-538쪽.

36 이주라·진산, 『웹소설 작가를 위한 장르 가이드 1. 로맨스』, 북바이북, 2015, 97쪽.

37 앤서니 기든스, 배은경·황정미 역, 『현대 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새물결, 2003(2판 3쇄), 87쪽.

시 이러한 인내의 문법을 고스란히 물려받았으나, 그 인내의 과정에 저항하며 여성의 분노를 터뜨린 작품이 등장하게 된다. 2002년 로맨스 소설 웹 연재 사이트인 로망띠끄에서 연재되었던 이지환 작가의 『이혼의 조건』이 바로 그것이다.[38]

이 작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인공 '현수'는 상류층 집안의 자제로, 재벌 2세 '지헌'을 짝사랑한다. 지헌은 원래 '영혜'를 사랑하고 있었으나, 집안의 반대로 헤어지고 현수와 정략결혼을 해야 했다. 약혼식 이후 함께 결혼하여 산 4년 간의 시간 동안 지헌은 현수의 사랑을 외면하다가 결국 첫사랑인 영혜와 불륜을 저지르고 현수와 헤어지기로 결심한다. 현수는 분노하며 그와 이혼한다. 변호사인 오빠를 통해 남편 지헌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한편 영혜에게는 단돈 십 원의 위자료를 요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이 그와 결혼 생활을 함께했던 4년만큼, 영혜와 지헌 역시 아이를 갖지 않고 결혼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 조건을 지킬 시 현수는 지헌의 조부에게서 받은 회사 지분을 지헌에게 넘기겠다는 것이다.

시간이 흘러, 현수는 이혼 후 꿋꿋하게 살아간다. 대학 시절 그녀를 짝사랑했던 선배 '동욱'과 만나 그와 사랑에 빠지고 재혼을 결심한다. 한편, 영혜와 동거하는 지헌은 점점 영혜와 멀어진다. 지헌은 그와 함께 살았던 현수를 잊지 못하고 결국 자신을 떠난 현수의 행방을 수소문해 그녀의 주변을 맴돈다. 『이혼의 조건』의 결말은 현수와 동욱의 재결합보다는 지헌의 좌절에 초점을 맞춘다. 지헌은 현수가 동욱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본인과 재결합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눈물을 흘린다. 설상가상으로 헤어지려고 했던 영혜가 자신의 아이를 가져 꼼짝없이 결혼까지 하게 되고, 회사 지분마저 잃게 된다. 지헌의 결혼식 날 나타난 현수는 "행복하세요."라는 말을 남기지만, "지헌의 귀에는 그 말이 다르게 들렸다"고 서술된다. "어디 한번 행복해 보세요?"라고 말이다.[39]

지헌을 향한 사랑만으로 4년을 인내했던 현수는, 작품 초반부터 더 이상 참

38 종이책 출간 이후로 연재된 글을 찾아볼 수 없게 되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글은 2002년 최초 연재된 이후, 수정하여 재연재가 된 것으로 보인다. 논문에서는 초판본 종이책을 참조하였다.

39 이지환, 『이혼의 조건』 2, 현대문화센터, 2002, 313쪽.

지 않겠노라 부르짖는다. 『이혼의 조건』은 주인공인 현수가 새로운 사랑을 얻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던 지헌이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부분에서 결말을 맞이하면서, 이 작품의 주요 메시지가 현수의 분노와 복수의 성공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복수는 이혼,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지헌을 향한 사랑이 완전히 소멸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여자 주인공이 가진 사랑의 불씨가 분노의 불길로 번져, 남자 주인공을 단죄하는 결말은 전형적인 로맨스의 문법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이혼의 조건』에 대해 로망띠끄에 게재된 한 독자의 감상 게시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로맨스 소설이 대부분 그렇듯이 남주가 아주 바람둥이고, 여주에게 아주나쁘게 굴다가 나중에뉘우치고 여주는 남자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내용이 대부분"인데, 『이혼의 조건』은 다소 현실적인 작품이라 공감이 갔으며 "아주 후련함"을 느꼈다고 고백한다. 그러면서, "바람둥이가 아주가정적인 사람니[아주 가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로맨스소설에서나가능하다생각하거든요.(…)그래서로맨스소설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한다.[40]

이 감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혼의 조건』은 당시의 로맨스 문법을 깨뜨리며 독자의 말마따나 "후련함"을 느낄 수 있는 텍스트였다. 독자는 작품 속 남녀 주인공의 관계를 토대로 현실의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떠올리기에 이른다. "바람둥이"가 "아주 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현실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것이라고 말이다. 이처럼 『이혼의 조건』 속 여자 주인공의 분노는 현실 여성의 삶을 돌이켜보게끔 한다.

애초에 『이혼의 조건』의 작가 이지환(연재 당시 필명은 '자작나무')은 바람기 다분한 남성에 대한 분노를 밑거름 삼은 복수의 서사로 이야기를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 로망띠끄에 연재된 최초 게시글 및 수정본 연재 게시글은 종이책 출간 이후 삭제되어 찾아볼 수 없으나, 당시 독자가 남긴 반응에서 '작가의 말'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작가 이지환은 현수의 상황과 비슷한 한 일화

40 이명옥, "이혼의 조건, 재혼의 법칙을 읽고난후…", 2004.01.27., https://bit.ly/3ORiRzC, 최종접속일: 2026.06.30.

를 듣고 분노하여 창작을 시작했다고 한다. 해당 독자는 이 후기를 읽고, "작품에 애정이 가기 시작했"다고 말한다.[41]

『이혼의 조건』을 읽으며 자신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는 감상을 남기는 독자도 있었다. "요즘 인기 드라마인 인어 아가씨와 함께 이 설[소설]을 읽으면서 막 가슴속에 뭐가 막 올라와요…"라고 밝힌 독자는, 한때 남편과 열렬한 연애 끝에 결혼했고 7년차인 지금은 그 불타오름이 가라앉은 상태임을 고백한다. 그러면서도 현수와 비슷한 상황에 놓이는 "그런 생각 만으로도 막 끌어 오"른다고 밝힌다. 다소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놓던 감상은 한국의 기혼 여성이 놓인 처지를 한탄하는 것으로 옮겨 간다. "이 소설은 아이가 없는 부부이고, 로설[로맨스 소설]의 특성상 부유층 얘기 지만, 아이가 있는 평범한 서민인 전 현수처럼 당당하게 남편을 대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라고 하면서, "아마 대부분 우리나라 여자들이 그럴꺼구요… 이래 저래 심란하"다고 말이다.[42]

『이혼의 조건』의 독서는 남편의 배신을 목도하고도 "아이가 있는 평범한 서민"의 입장에서는 이혼을 요구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분개로 번져나간다. 또 다른 감상글에는,『이혼의 조건』에 등장한 장면을 예로 들며 이혼한 여성에 대한 사회의 이중적 잣대를 꼬집기까지 한다.『이혼의 조건』에서 가족들이 현수가 "드라마를 보고 웃으면 비난어린 시선을 던지고, 화장을 좀 진하게 했다 싶으면 꾸짖는" 장면에 주목하며, 이것이 "대부분의 한국 이혼녀가 당하는 일"이라 일갈한다. 그러면서 "한국에는 너무나 많은 이중잣대"가 적용되고 있으며 "정작 그 피해자인 우리 여성 스스로" 역시 그 이중잣대 논리에 빠져 행동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 예시로 작품 연재 당시 현수와 재혼하는 인물인 동욱이 지헌보다 매력

41 해당 글에는 작가의 후기에 대해 이렇게 소개한다. "작가의 후기를 더욱 좋아하는 나는 [결혼한 후에 바람 엄청 피고 첫사랑 딴 여자 좋다고 훌쩍 갔다가 다시 당신만 사랑해 어쩌고 저쩌고 애원 하자마자 다시 봐주는 여자들 이야기를 읽고 너무 열 받아서…… 사흘 만에 다 쓴 글입니다.] 라는 작가의 말을 읽은 후에 더욱 이 작품에 애정이 가기 시작했다." 루화, "[감상]이혼의 조건-자작나무작", 2002.07.24., https://bit.ly/4b6drbd, 최종접속일: 2026.06.30.

42 강은영, "이혼의 조건……", 2002.08.30., https://bit.ly/4b2DS2Z, 최종접속일: 2026.06.30.

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독자들에게 받은 이유가, 그가 기생의 아들이라는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주장한다. 또한 로맨스 소설 답지 않게 현실적이라는 이 작품의 '명성'으로 미루어 볼 때, 독자는 물론 작가까지 현수가 이혼녀이기 때문에 기생의 아들 동욱과의 결합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기도 한다.[43]

독자들의 감상글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이혼의 조건』은 한국 사회에서 이혼한 여성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을 포착하여 독자로 하여금 분노를 표명케한다. 이때 작품 속 현수와 독자들이 느끼는 분노는 여성이 겪는 차별과 피해의 증언으로 연결되며, 이는 페미니스트 주체와 관련 담론의 형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었다. 사라 아메드는, 여성의 고통에 응답하며 실천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분노가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페미니즘 정치에 있어서 "분노는 고통이 발생한 상황이 잘못됐고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일이자 이에 대응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일"이다.[44] 그는 오드리 로드의 작업과 같은 흑인 페미니즘의 예시를 들며 분노의 정념을 통해 각종 차별에 대항하는 에너지를 얻게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한다.[45]

한편, 분노와 용서의 문제에 대해 철학적으로 분석한 마사 누스바움은 분노라는 것이 그 "개념 자체에 누군가, 혹은 무언가 중요한 존재가 심각한 부당행위를 당했다는 생각뿐만 아니라 그 부당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나쁜 결과를 겪어야 마땅하다는 생각도 포함"된 것으로 본다.[46] 즉, "어떤 형태로든, 아주 미묘한 방식으로라도 상대에게 복수를 하려 들거나 당한 피해를 갚아주려는 생각이 분노 개념의 구성요소"라는 것이다.[47] 한편, 앞서 아메드가 언급

43 seoharan, "[비평]이지환님의 '이혼의 조건'-우리와 남을 재는 기준", 2003.04.07., https://bit.ly/4bs6UsM, 최종접속일: 2026.06.30.

44 사라 아메드, 시우 역, 『감정의 문화 정치』, 오월의 봄, 2023, 372쪽.

45 위의 책, 373-375쪽.

46 마사 C. 누스바움, 강동혁 역, 『분노와 용서』, 뿌리와이파리, 2018, 28쪽.

47 위의 책, 49쪽; 누스바움은 사람들이 분노를 통해 가해자에게 피해를 갚아주고 말겠다는 두 가지의 길로 접어든다고 설명한다. 그 첫 번째 길은 인과응보의 길(road of payback)로, 잘못을 저지른 자가 고통을 받으면 어떤 식으로든 손상된 중요한 것을 복구하거나 복구하는데 일조한다고 생각하는, 이른바 '우주적 균형'을 회복할 것이라는 믿음이 바탕이

한 것과 같이 "무언가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분노는[48], 누스바움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행-분노(Transition-Anger)'다. '이행-분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이자, 이를 세상에 보내며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일종의 "느낌표" 역할을 한다.[49]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혼의 조건』은 페미니즘 정치에서 필요한 '느낌표'의 역할, 즉 페미니즘적 이행-분노를 유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독자들의 이러한 반응과 다르게, 작품 자체는 누스바움이 말한 인과응보의 길을 걷는다. 즉, 지헌의 사랑과 사업의 실패를 그려내면서 '우주적 균형'을 그려내는 것이다. 지위의 길, 즉 격하된 아내의 지위에 대한 분노도 존재하지만 『이혼의 조건』의 현수는 그 지위를 회복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이탈하며 새로운 사랑과 자신의 삶을 사는 것으로 복수를 실행한다. 물론 이것은 독자의 반응처럼 '아이 없는', '상류층의' 현수의 조건 덕분에 가능한 것으로, 동시대 여성의 조건과 달랐기에 가능한 것으로 그려졌다.

요컨대 『이혼의 조건』은 여성 주인공의 분노를 통해 로맨스 장르의 문법이 구현하던 인내의 관습을 비켜나가는 동시에, 동시대 기혼 여성 지위의 불안정성

된다. 두 번째는 지위의 길(road of status)이다. 누스바움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 혹은 자신과 가까운 누군가가 '무시 또는 지위 격하'가 일어났다고 판단했을 때 분노가 일어난다고 설명했던 것에 초점을 맞춘다. 현대 사회에서도 여러 자질을 두고 서열을 강박적으로 매기곤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인식되는 지위 격하를 '지위-피해(status-injury)'로 본다. 지위-피해는 상당 부분 개인의 불안감과 취약성에 관련 되는데, 이를테면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라는 상황이나 통제력을 행사하고 싶은 욕망을 느끼는 경우와 같이 잃어버린 통제력의 복구를 목표로 많은 이들이 분노하기 때문이다. 누스바움은 분노가 이 두 가지의 길을 걷기 때문에 규범적으로 문제적이라 생각한다. 이 글은 누스바움의 의견에 동의하나, 후회남 로맨스가 기혼 여성이 느끼던 부당함의 감각을 서사화를 통해 봉합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어, 용서를 통한 통제력 회복의 카타르시스에 좀 더 주목한다. 위의 책, 52-53, 58-60, 64-71쪽.

48 "페미니즘은 분노에서 출발해서 페미니즘이 맞서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일에 다다른다."고 언급한 것처럼, 아메드는 분노를 일으키게 만든 원인(고통)에 주목하고, 이 분노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페미니즘이 대응해야 하는 대상을 창조한다고 설명한다. 사라 아메드, 앞의 책, 375-376쪽.

49 마사 C. 누스바움, 앞의 책, 94-95쪽.

을 독자들이 인식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 주인공 현수의 이혼은 아내로서의 자기 지위를 격하한 상대방에게 앙갚음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그에게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 지위를 이탈함으로써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삶을 선언하는 형태의 복수다. 그런데 이러한 이탈의 복수는 대다수의 동시대 여성에게는 불가능한 것이었고, 독자들은 다른 형태의 복수를 욕망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혼이라는 복수는 이후에 등장하는 후회남 로맨스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변형된다. 4장에서는 이혼(이탈)이 아닌 탈환의 방식으로 복수의 구조가 변화되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4 응보적 심판과 지위 '탈환'의 서사

『이혼의 조건』이 연재되던 당시, 웹사이트 로망띠끄에서는 연재 중에는 물론이고 결말 이후에도 현수를 둘러싼 두 명의 남자, 지헌과 동욱 중 누가 더 매력적인 인물인지 댓글과 게시글 본문을 통해 의견이 오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부 게시글의 답변을 소개해 보면 그림 1과 같다.[50]

『이혼의 조건』을 읽은 다수의 독자가, 현수에게 다시 사랑을 고백하는 지헌을 멋있다고 하거나 "칼[카리스마]"이 대단하다는 평을 내린다. "머리로는 지헌을 비판분석했는데" "심장은 여전히 지헌이를 향해서 두근거"린다는 감상 역시 찾아볼 수 있다. 『이혼의 조건』의 결말이, 현수와 동욱의 결합 이후 지헌이 사랑에 실패하는 내용임을 감안 한다면 상당수의 독자가 '나쁜 남자의 개심' 과정을 좀 더 흥미롭게 여기며 해당 캐릭터를 매력적이라고 반응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 독자는 소설의 결말을 두고 작가인 이지환의 허락을 받아 「재혼의 조건」이라는 제목의 팬픽션을 창작하기도 했는데, 해당 작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51]

---

50 떠도는 유령, "자작나무님의 '이혼의 조건'이 남긴 것", 2003.01.22., https://bit.ly/4bsitQA, 최종접속일: 2026.06.30.

51 해당 팬픽션의 연재는 '노을'이라는 이름의 사용자가 '블루문'이라는 웹사이트에서 게시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관련 정보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이혼의 조건』을 읽은 독자라면 대부분 읽어본 경험이 있는 작품으로, 현재도 「재혼의 조건」은 구글 검색을 통해 텍스트(.txt) 파일, 소위 '텍본'을 통해 읽을 수 있다. 최초 연재 사이트 및 게시자에 대한 정보는 아래


cherry78 2003-01-23 오전 6:54:27 신고 ♥좋아요 0

저두 로망연재때랑 수정본 두개 다 봤는데요, 근데 전 죽으나 사나 지언이만 온리 지언만 그렇게 멋지더라구여, 그 다른(이름도 생각안나네,,,—,.—)남주 수정본에서 비중이 높아지긴 했으나 지언만 눈에 들와서리..에필때 가슴이 찢어졌습니다..흑흑..저는 비정상인가 봅니다..

소린 2003-01-23 오전 9:44:33 신고 ♥좋아요 0

지헌이가 멋진놈이었긴 했죠. 사실 첨에 모두 지헌이에게 표가 많이들 갔죠. 그만큼 같이 죽였거덩요. 하지만 우리의 동욱이의 멋지구리한 모습에 지헌팬들 다시 동욱이게게루 많이 돌아갔다고 봅니다. 저두 첨엔 지헌이 팬이었거덩요. 하지만 수정을 거듭할수록 울 동욱이의 칼수마와 더불어 적당히 뻔뻔해질수도 있는 기분좋은 유들함까정.. 그러니까 울 현수도 뻑 갔겠죠? 동욱같은 넘은 현실서 찾기가 힘들것같습니다. 이혼의 조건은 정말 유형님 말처럼 많은 반향을 일으킨것 같습니다. 소재도 소재이거니와 내용도 그렇구요. 나무님의 글발에 또 한번 감동했죠. 책이 조만간 나온다고 하니 많이들 보세용. ^^ 색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빛을 발한다고 봅니다.

떠도는 유령 2003-01-23 오전 9:50:19 신고 ♥좋아요 0

전 여전히 지헌이 파입니다. 지헌의 말로에... 가슴이 찢어지고 있죠. 작아의 단편에서는 사실 남주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고, 현수가 참 홍미로왔습니다. 그러나 개작이 거듭될수록 절 사로잡는 지헌의 마력 ! 체리님처럼 동욱이는 최종판에서까지 지헌의 그림자에 묻혀 제 마음에서는 존재가 희미하더군요.
사실 어디 리뷰에 올리려고 이혼의 조건과 연아란 작가분의 이방인을 비교해서 글을 썼거든요. 머리로는 지헌을 비판분석했는데... 아... 제 심장은 여전히 지헌이를 향해서 두근거리더군요. 불쌍한 지헌이... 출판작에서도 내 지헌이가 그리 참혹해진답니까 ? 미운 자작나무님... 작가님이 이렇게 미워지기는 자작나무님하고 맥주퀸님이 처음입니다.

[그림 1] 로망띠끄 작가사랑 게시판에 업로드된, 한 게시글의 댓글 캡처

「재혼의 조건」은 지헌이 현수를 그리워하고 그녀에게 매달리는, 원작에도 등장하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지헌에게 외면받기 시작한 영혜가 현수의 집에 찾아오고, 둘은 다투고 만다. 현수는 영혜와 같은 여자에게 그를 넘기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이 지헌을 다시 가로채기로 결심하고 그를 자신의 방식대로 길들일 생각을 한다.

지헌은 영혜가 돈 때문에 자신에게 매달리는 것을 깨닫고 그녀와 헤어진 뒤 현수의 친정집을 한 달 동안 매일 찾아가 성실하게 사위 노릇을 한다. 현수는 그를 시험해 보기 위해, 동욱에게 양해를 구해 그와 잠자리를 가진 것처럼 꾸미고 호텔에 속옷 심부름을 시킨다. 현수는 영혜에게 받았던 위자료 10원을 돌려주고 지헌과 재결합한다. 이후 지헌은 현수의 수발을 들며 지낸다. 하루나 이틀에 한 번, 현수는 지헌이 자신에게 해주는 온갖 수발의 가치를 금액으로 매긴 뒤, 포상을 준다. 이를테면 오만원에 키스 한 번과 같은 식으로 말이다. 지헌은 현수를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며 소설은 끝이 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재혼의 조건」와 비슷한 전개와 결말이 2000년대 다수의 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글은 그러한 작품들을 후회남 로맨스라 보고, 해당 작품들의 이야기 단위를 표로 정리해 보았다.

와 같다. 이명옥, “이혼의 조건, 재혼의 법칙을 읽고난후…”, 2004.01.27., https://bit.ly/3ORiRzC, 최종접속일: 2026.06.30.

단계	이야기의 단위	
결합	1	여자 주인공(이하 여주)와 남자 주인공(이하 남주)이 정략결혼하여 부부가 된다.
균열	2	여주의 애정과 노력에도 남주는 이를 외면한다. 남주는 외도하거나 오해할 상황을 만든다.
	3	여주는 남주와 이혼을 시도하거나, 이혼한다.
	4	남주는 여자 주인공의 사랑을 그리워한다.
	5	여주를 좋아하며 조력하는 인물이 등장해 여주의 마음을 흔든다.
후회	6	남주는 자신이 과거에 여주를 크게 상처입혔음을 깨닫는다. 대개 외도한 여성과 헤어지거나, 여주를 오해하도록 만든 잘못을 뉘우친다.
	7	남주는 눈물을 흘리며 후회의 시간을 보낸다.
용서-해피엔딩	8	남주의 참회를 받아들이며 여주와 남주는 재결합한다.

『이혼의 조건』에서도 나타났던 '결합'과 '균열'의 단계는, 결말부를 다시 쓴 팬픽션 「재혼의 조건」이 그려내는 '후회'와 '용서-해피엔딩'의 단계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이야기의 흐름은, 대표적으로 이현수의 『비가』(눈과 마음, 2002)[52], 김지오의 『결혼 후에』(눈과 마음, 2002)[53], 제8회 로맨스소설 현상공모전 당선작인 유하인의 『단 한 번 만이라도』(신영미디어, 2003)[54], 윤혜원의 『결혼이라는 이름

52 착한 딸, 착한 아내로만 살아왔던 주인공 '주영'은 '기찬'과 결혼하나, 그는 직장에서 만난 '소연'과 불륜을 저지른다. 자신과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끊은 것에 화가 난 소연은 보복 운전을 하고, 이 과정에서 주영과 기찬의 아이 '주호'가 사망한다. 이 일을 계기로 주영은 기찬과 이혼하고 도피하여 지낸다. 주영은 조력자 '이규'의 회사에서 일을 하던 중, 기찬이 찾아와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 재결합을 강행한다. 그러다 기찬은 교통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는데, 주영이 그의 곁을 지키며 두 사람은 재결합에 성공한다.

53 '현성'과 결혼한 지 2년 째인 '민정'은 사랑했던 남편과의 관계에 권태를 느낀다. 시댁에만 다녀오면 히스테릭해지는 민정은 사실 시어머니에게 핍박을 받고 있었으며, 임신 후 유산을 강요받은 사실도 있었다. 그러나 다시 임신한 민정은 아이를 지키기 위해 도피하고, 현성과 이혼을 시도하다가 그가 모든 사실을 알아차리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재결합한다.

54 '은진'의 남편 '예준'은 지난 사랑인 '세희'를 잊지 못해 아내를 거들떠보지 않는다. 결국 은진은 결혼생활 5년 동안 독수공방하며 괴로워한다. 점점 은진에게 애정을 갖게 된 예준은 세희에 대한 마음을 접고, 가족들이 그녀에게 압박했다는 오해를 푼다. 그러나 은진은 예준이 아직 세희를 그리워하고 있다고 오해한다. 은진의 친구가, 5년 동안 쓴 은진의 일기

의 전쟁』(영언문화사, 2003)[55], 그리고 윤태루의 『결혼-늦은 용서』(신영미디어, 2005)[56] 등 이후에 등장한 다양한 작품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잠재되어 있던 독자의 욕망이 『이혼의 조건』의 팬픽션이라는 형태로 표출된 이후, 동일한 욕망 구조가 다양한 작품으로 반복되어 2000년대 후회남 로맨스라 엮을 수 있을 만한 관습이 된 것이다.

이를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만남(①)에서 여자 주인공은 대개 남자 주인공을 먼저 짝사랑하고, 상류층인 둘은 정략결혼을 한다. 앞서 밝힌 『이혼의 조건』의 독자들이 주인공과 스스로를 거리 두고 있었음에도 여전히 남녀 주인공이 상류층으로 그려진 것은, 친밀성이 부족하면서도 가족 안에서의 의무가 중대한 부부 관계를 부각하기 위해 정략결혼의 코드가 사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로 인해 친밀성으로 이루어진 혼사가 아니어도 가족의 의무를 다하는, 여자 주인공의 헌신이 극대화되는 것이다. 특히 여자 주인공은 남자 주인공의 집안과 견주어도 밀리지 않거나, 오히려 남자 주인공의 집안보다 사회적 명망이 높고 부잣집 딸로 서술되기도 한다. 일부 작품에서는 여자 주인공의 집안에 의해 남자 주인공의 가정이 와해 되고 어려운 유년기를 보내어 복수를 하기 위해 그녀에게 접근했다는 플롯이 추가되는 작품이 나타나기도 한다.[57]

를 예준에게 보여주며 둘의 오해가 풀리고 은진과 예준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다.

55 '규희'는 자신과 같은 상류층 재벌 2세 '석호'를 어린 시절부터 좋아하게 된다. 그러나 그는 그녀를 편한 여동생으로만 생각한다. 석호를 가지기 위해 정략결혼을 하지만 석호는 첫사랑과 닮은 '연'과 만남을 가진다. 규희 역시 호스트인 '현우'와 만남을 가지고, 이 일을 계기로 둘은 깊은 오해가 생겨 이혼한다. 미국으로 도피한 규희는 석호의 아이를 낳고, 아이의 유전병을 고치기 위해 3년 뒤 석호를 다시 찾는다. 규희를 잃은 것에 괴로워하던 석호는 새 삶을 살기 위해 연과 결혼한 상태였는데, 규희와 아이 소식을 듣고 방황한다. 석호를 향한 연의 집착이 병적인 것임이 밝혀지면서, 결국 연은 규희와 아이를 납치한 살인 미수범으로 체포된다. 이후 석호와 규희는 재결합한다.

56 '지서'는 '차무'와 결혼하나, 남편이 '지우'라는 여성과 외도하는 것을 알게 된다. 덩달아 아이를 유산한 지서는 도피하여 '백현'의 회사에서 일한다. 차무는 지서를 찾아내고, 그녀에 대한 마음을 깨닫고 사랑을 갈구한다. 그러나 지서가 자신의 아이를 유산했으며, 그것이 외도 사실로 인한 충격이었음을 알게 되고 지서에게 용서를 구한다. 이후 큰 사고를 당한 차무는 사망했다는 오보를 정정하지 않고 지내다가, 지서와 재회하며 재결합한다.

57 이는 가선의 『각의 유희』(영언문화사, 2003), 문현주의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현대문화

균열(②-⑤) 단계에서, 여자 주인공은 정숙한 아내이자 며느리로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만, 그 노력과 애정에 대해 남자 주인공이 충분히 알아주지 못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외도를 저지른다. 여자 주인공은 남자 주인공과 이별을 시도하며, 이러한 여자 주인공의 선택은 남자 주인공의 마음을 흔드는 계기가 된다. 한편, 조력자는 여자 주인공의 마음을 흔들 뿐만 아니라 남자 주인공의 질투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후회(⑥-⑦) 단계는 후회남 로맨스의 서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남자 주인공은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음을 깨닫는다.[58] 그는 눈물을 흘리며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때로는 죽음을 불사하며 여자 주인공을 향한 자신의 절절한 마음을 증명한다. 그리고 그 절절한 참회를 여자 주인공이 용서(⑧)하면서 둘은 재결합한다. 작품마다 이야기 단위의 일부가 변형되는 경우도 있지만, 큰 틀에서는 이 흐름을 따른다.[59]

여자 주인공의 용서 이후, 부부 관계의 권력 구조가 실질적으로 변화되어 여자 주인공이 얼마나 주체적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서술이 되어 있지 않다. 로맨스 서사가 으레 그러하듯, (재)결합한 두 주인공의 행복한 장면을 간단히 제시만 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해당 결말이, 여자 주인공의 인내를 중심으로 한 기존 로맨스 문법을 다시 따르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실질적인 권력의 획득보다, 남자 주인공을 향한 애정이나 그의 죄책감에 의존하는 일시적인 우위라는 착시로 읽힐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소개한 로망띠끄 게시글에 달린 〈재혼의 조건〉에 대한 댓글을 살펴보면, 독자들은 남자 주인공의 지위 격하에 초

센터, 2003), 이금조의 『청랑』(청어람, 2007)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세 작품 역시 후회남 로맨스가 가진 이야기 단위를 대체로 따르나, 해당 갈등 요소가 플롯을 다소 변형하는 부분이 있어 주 해석에는 제외시켰다.

58 『이혼의 조건』, 『비가』, 『단 한 번 만이라도』, 『결혼-늦은 용서』, 『결혼이라는 이름의 전쟁』에서 외도 혹은 결혼 전 연인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는 한편, 『비가』와 『결혼 후에』, 『결혼-늦은 용서』는 남편이나 시댁에 의한 스트레스나 사고로 일어난 친자의 죽음(유산)이 여주가 받은 심적 고통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난다.

59 예를 들어, 김지오의 『결혼 후에』의 여자 주인공은 상류층이 아니며, 남자 주인공과 연애 후 결혼하였다. 둘은 이혼을 시도하지 않고 그저 권태기 상태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여자 주인공의 조력자가 등장하지 않는다.

점을 맞추어 결말을 이해한다.

> 현수가 작가로 공부하는 동안 지헌이는 뒷바라지 열씨미 하면서, 그간 얼음마왕아니, 나쁜 놈의 이미지는 탈탈 벗어던지고, 현수의 사랑아래서 딸랑거리는 종이됩니다. 정말, 현실에서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바뀌지 않을까여? 아 저두 그래서 로맨스소설이 좋은가봅니다. 오로지 둘만 바라보는 사랑…절대적인 사랑…[60]

위의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독자는 "현수의 사랑아래서 딸랑거리는 종이"된 지헌의 상태에 주목한다. 지금의 후회남 로맨스를 읽는 독자들의 반응처럼, 독자들은 남자 주인공의 권력이 여자 주인공의 '발밑에' 떨어진 것으로 인식하고 그것이 사랑에 대한 증명이라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후회남 로맨스를 인내의 회귀라고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다. 위의 반응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후회남 로맨스에는 남자(주인공)를 굴복시키고 그를 향한 통제력을 획득하려는 여성 독자들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욕망은 현실과의 타협을 지위의 '탈환'으로 여기게 만든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 복수는 용서를 통해 이루어진다.

누스바움에 따르면 "용서란 분노의 중화 및 복수 계획의 중단에 관하여 두 사람이 벌이는 상호작용의 과정"이다.[61] 부당 행위를 저지른 자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통렬한 뉘우침을 통해 비로소 개심하여 '더 나은' 인간이 되었음을 증명해야, 부당 행위의 피해자인 상대방의 허락 아래에 용서가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다. 누스바움은 이러한 일반적인 용서의 과정 안에 도사리는 공격성과 통제적 요소를 지적한다.[62] 유대-기독교의 전통에서 비롯된 이 용서의 과정은, 자비로운 신 앞에서 자신이 저지른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내면 세계의 온갖 것을 참회하고 회개하는 것으로 변화하면서,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

60 이명옥, 앞의 글.
61 마사 누스바움, 앞의 책, 135쪽.
62 위의 책, 135-137쪽.

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문제는 이것이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서도 나타나게 되면서 용서의 윤리가 복수의 윤리와 병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용서는 (부당 행위자의) "자아에게 폭력적"이며, "자발적 명예훼손 과정"이기 때문에 "가혹한 심문의 과정"이 된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압제적이고 잠재적으로는 폭력적이기까지 한 방식으로 타인의 내면세계에 침입"하는 것이다.[63]

누스바움이 말한 것처럼 용서를 앙갚음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면, 후회남 로맨스는 확실히 용서를 통한 복수 서사라고 볼 수 있다. 후회남 로맨스는 여자 주인공이 가족 내에서의 의무를 다했음을 다소 과장되게 표현하며 그 무고함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혼의 조건』의 현수는 지헌과 결혼하기 전, 그의 첫사랑인 영혜에게 "사랑은 엄청난 노력과 헌신, 때로는 치욕적인 것까지 감수하는 무서운 것"이라 말한다. 그리고 그 말대로 현수는 약혼식 이후 결혼까지 4년의 시간 동안 지헌을 향해 헌신한다.[64] 심지어 외도를 저지른 남편을 위해 호텔에 속옷 심부름까지 할 정도로 말이다. 『단 한 번 만이라도』의 은진 역시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고의 세월을 견딘다. 5년 동안의 결혼 생활 동안 손가락도 하나 대지 않을 정도로 남편에게 소박맞은 은진의 "인내심은 가뭄 맞은 논처럼 메말라 쩍쩍 갈라진 바닥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지만, "'아내'라는 이름으로 그의 곁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버틴다.[65]

그런데도 남자 주인공은 가족 내의 의무를 다한 여자 주인공을 인정하지 않는다. 『비가』의 남자 주인공 기찬은 자신의 아내인 주영과 어떠한 감정적 교류도 나누지 않는다. 다정한 말 한마디조차 건네지 않는 기찬의 눈에, 주영은 "아무런 감정도 없는 인형."에 지나지 않는다. "성실한 아내이자, 충실한 며느리로서 완벽"한, "그녀는 현모양처라는 이름의 인형"이라 치부하고 자신을 유혹하는 다른 여자에게 한눈을 판다.[66] 가족 안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이가 아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에 대해 정당한 평가와 그 지위를 인정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에 실패한 것이다.

63 위의 책, 163-165쪽.
64 이지환, 『이혼의 조건』 1, 현대문화센터, 2002, 76쪽.
65 유하인, 앞의 책, 22쪽.
66 이현수, 앞의 책, 21쪽.

이혼하거나 이혼을 시도하며 남편과 별거하게 되더라도, 여자 주인공은 사회적·경제적 약자가 되고 만다. 이혼은 친정과 시댁 모두로부터 등을 돌리는 일이기에, 여자 주인공은 그나마 그녀에게 호의를 베푸는 조력자가 없으면 고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혼의 조건』은 물론 『비가』, 『결혼-늦은 용서』 등 남편과 이혼하거나 이혼을 시도하는 여성 주인공 모두 가정주부에서 '직업전선'에 뛰어드는 생활인이 되고자 한다. 이들은 자신의 새로운 삶에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갖지만, 한편으로는 실패한 사랑의 과거와 이혼 여성이라는 자신의 현 지위에 억눌리고 만다. 대표적으로 『결혼이라는 이름의 전쟁』의 주인공 규희는 자신을 "고등 교육을 받았고, 무엇보다 페미니즘의 실천가"라 자부하는 인물이다.[67] 남편인 석호가 외도하는 것을 알고 화가 난 규희는 호스트인 현우를 만나 '맞바람'으로 응수하며 싸움을 벌인다. 이 과정에서 명예가 크게 손상되는 것은 규희 본인일 뿐이다. 남편에게 강간당한 그녀는 임신한 몸을 이끌고 미국으로 도피해 어렵게 살아간다. 이혼한 이후에 십중팔구 겪게 될 계층적 '추락', 그리고 '이혼 여성'이라는 지위의 격하라는 지위-피해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후회남 로맨스의 특수한 전략은, 여자 주인공이 자신의 처지에 대해 분노를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않는 것에 있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오랜 시간 고초를 겪은 여자 주인공은 실패한 결혼에 대한 한탄, 아이를 잃어버린 고통, 남편의 외도에 대한 상실 등 사건 자체에 매몰되어 슬픔의 제스처만 취한다. 그리고 그 슬픔에 값하듯, 남자 주인공 역시 절절한 자기 비하와 회개,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내뱉는 죄의 고백을 한참이나 쏟아붓는다. 용서는 두 남녀 주인공이 마치 살풀이라도 하듯 애절함을 오래 쏟아붓고 나서야 이루어진다. 물론 모든 용서의 열쇠는 여자 주인공이 가지고 있다. 누스바움이 논한 대로, 여자 주인공의 용서 안에 있는 '앙갚음'의 정서를 당시 독자들은 정확히 읽어내며 반응했던 것이다.

정리하자면, 후회남 로맨스는 이전 로맨스의 문법이 취했던 '인내'의 톤(tone)을 다소 유지하며 분노의 발톱을 숨긴 채 자애로운 용서의 미소로 아내의 자리를 '탈환'하는 복수 서사다. 이처럼 2000년대에 후회남이 등장하는 로맨스 소설은 『이혼의 조건』과 같이 능동적인 응징의 결말이 있는가하면, 후회남 로맨

67 윤혜원, 앞의 책, 269쪽.

스처럼 응보적인 서사도 존재했다. 『이혼의 조건』이 상류층이라는 여자 주인공의 '비현실적' 조건으로 복수하는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등장한 후회남 로맨스는 상류층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가질 수밖에 없는 취약한 위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앞서 살펴본 『이혼의 조건』에 대한 감상글이나, 동시대 기혼 여성들에 대한 연구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당시 그들이 마주하는 현실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현실의 기혼 여성이 가족 내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협상했던 것과 같이, 아내의 자리를 비로소 '탈환'하는 서사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기 위해 후회남 로맨스는 자기비하적 후회의 과정을 거친 남자 주인공을 독자들에게 선사한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들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여자 주인공은 응당 자신에게 주어져야만 했던 통제력을 발휘하여 '행복한 결말'에 다다르며, 비로소 아내의 복수 서사인 응보적 심판과 '탈환'의 복수 서사를 완성하게 된 것이다.

5 결론

이 글은 2000년대 로맨스 소설 속 후회남을 둘러싼 두 종류의 여성 복수 서사를 확인하였다. 작품 속 남자 주인공의 배반은 단순히 사적 관계의 신뢰를 깨뜨리는 것이 아닌, 사회구조적으로 취약한 기혼 여성의 지위를 흔드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는 당대 기혼 여성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였다. 후회남이라는 인물형을 주목하게 만든 작품, 『이혼의 조건』을 읽은 독자들은 남자 주인공이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용서를 비는 장면에 호응을 보냈다. 이는 당대 기혼 여성이 현실에서 실현할 수 없었던 욕망, 즉 가족 내 아내의 책무를 다한 것에 대해 정당하게 평가받고 잃어버린 통제력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서사화를 통해 충족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혼의 조건』이 이혼이라고 하는 이탈의 방식을 통해 분노를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복수를 보여주었다면, 이 작품의 팬픽션인 〈재혼의 조건〉을 포함한 다수의 후회남 로맨스는 그 분노를 전략적으로 숨기는 것을 보여주었다. 응보적 심판의 과정을 자애로운 용서로 치환하는, 아내의 위치를 '탈환'하는 복수 서사로

변모하기에 이른 것이다. 여자 주인공은 인내와 슬픔의 제스처 아래에 전략적으로 분노를 숨기다가, 남자 주인공이 눈물을 흘리는 참회의 과정을 통해 무릎을 꿇는 순간 그를 용서하여 통제력 있는 아내의 자리를 '탈환'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누스바움이 지적한 것처럼, 용서 그 자체가 부당 행위자의 내면세계에 침입하는 행위로 기능하여, 복수의 윤리와 병치하게 된 구조를 그대로 구현하는 것이다.

2000년대, 후회남이 등장한 로맨스는 당대 기혼 여성의 불안과 욕망을 서사화한 텍스트다. 남자 주인공의 배반은 단순한 사적 배신이 아니라 여성의 기반 자체를 흔드는 것으로 읽혔으며, 그에 대한 복수의 방식이 두 갈래로 나뉘어 나타났다. 『이혼의 조건』에서와 같이 분노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주체성을 찾아나가는 여성 주인공의 등장은, 종래의 로맨스가 그려냈던 인내하는 여성상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한편, 후회남 로맨스는 가족주의를 내면화하여 아내, 며느리로서의 의무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기혼 여성의 상황을 반영하여, 응보적 심판과 지위 '탈환'의 과정이 용서로 그려지는 복수 서사라 할 수 있다. 비록 후회남 로맨스가 가족주의의 질서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승인하고, 자기 지위를 보상받고자 하는 기혼 여성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미봉책으로 보일지라도 용서 안에 숨어있는 '앙갚음'의 정서를 간과해선 안된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2010년대 이후에도 후회남이 등장하는 로맨스는 후회남을 향해 능동적 응징을 가하거나, 응보적 성격을 지닌 용서의 서사로 나타난다. 특히 후회남 로맨스는 기혼 여성의 분노를 넘어 연인 관계 전반의 배신과 응보라는 더 넓은 맥락으로 확장되고 있다. 또한 정교하게, 상대방의 부당 행위와 뉘우침의 과정을 지칭하는 속된 언어가 생겨나기도 했다. 부당 행위를 계속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업보'라 지칭하고, 후회하는 상대방을 '발닦개'로 지칭하는 것과 같이 명사형의 용어가 나타나거나, 혹은 후회의 과정을 '구른다'고 말하는 것처럼 동사형으로 표현되기도 한다.[68] 다수의 인터넷 커뮤니티와 블로그 감상 글,

68 각종 정보 공유 커뮤니티에서 관련된 글의 제목을 확인할 수 있다. "발닦개형 후회공: 회피형 후회공", 2018.04.06., https://www.dmitory.com/novel/17458953, 최종접속일: 2026.06.30.; "발닦개 남주 너무 좋아ㅠ(목록유)", 2020.01.31., https://www.dmitory.com/novel/108997229, 최종접속일: 2026.06.30.; "업보에 따라서 나눠본 후회남 모음", 2021.10.25., https://theqoo.net/romancehl/2214790859, 최종접속일: 2026.

혹은 웹소설 연재 게시판의 댓글에서 분노와 용서의 고리는 코드화 되어 유희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가 어떤 사회적 맥락과 맞닿아 있으며, 특히 2010년대 이후의 독자 수용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 앞으로 '후회남'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가선,『각의 유희』, 영언문화사, 2003.

김지오,『결혼 후에』, 눈과 마음, 2002.

문현주,『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현대문화센터, 2003.

유하인,『단 한 번 만이라도』, 신영미디어, 2003.

윤태루,『결혼-늦은 용서』, 신영미디어, 2005.

윤혜원,『결혼이라는 이름의 전쟁』, 영언문화사, 2003.

이금조,『청랑』, 청어람, 2007.

이지환,『이혼의 조건』, 현대문화센터, 2002.

이현수,『비가』, 눈과 마음, 2002.

단행본

이재경,『가족의 이름으로』, 또하나의문화, 2003, 109-150쪽.

이주라·진산,『웹소설 작가를 위한 장르 가이드 1. 로맨스』, 북바이북, 2015, 97쪽.

장경섭,『내일의 종언?-가족자유주의와 사회재생산 위기』, 집문당, 2018, 9-17쪽.

마사 C. 누스바움, 강동혁 역,『분노와 용서』, 뿌리와이파리, 2018, 14-284쪽.

사라 아메드, 시우 역,『감정의 문화 정치』, 오월의 봄, 2023, 367-381쪽.

앤서니 기든스, 배은경·황정미 역,『현대 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새물결,

06.30.

2003(2판 3쇄), 87쪽.

논문

김혜영, 「한국의 가족주의와 여성 인권」, 『아시아여성연구』 제42호, 아시아여성연구소, 2003, 9-48쪽.

김혜영·이은주·윤홍식, 「여성빈곤의 구조적 요인과 빈곤의 여성화」, 『아시아여성연구』 제44권 1호, 아시아여성연구소, 2005, 5-51쪽.

김혜영·변화순·윤홍식, 「여성의 이혼과 빈곤: 직업과 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제20권 2호, 한국가족학회, 2008, 37-63쪽.

박혜경, 「경제위기시 가족주의 담론의 재구성과 성평등 담론의 한계」, 한국여성학, 제27집 3호, 한국여성학회, 2011, 71-106쪽.

백진아, 「한국 기혼여성의 가족 경험-가족주의와 변형적 친밀성의 결합」, 『담론 201』 제10집 3호, 한국사회역사학회, 2007, 241-269쪽.

손진원, 「1980년대 하이틴 성교육 콘텐츠와 할리퀸 로맨스 연구」, 『한국학연구』 제58호,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0, 501-551쪽.

손진원, 「여자들의 '차가운 분노'와 웹소설에서의 복수 서사」, 『여/성이론』 제48호, 도서출판여이연, 2023, 133-142쪽.

안병철, 「산업화와 핵가족화에 관한 비판적 고찰: 가족형태를 중심으로」, 『생활과학논집』 제2호,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1988, 103-110쪽.

이영자, 「한국사회의 가족주의와 페미니즘」, 『현상과 인식』 제23집 3호, 한국인문사회과학회, 1999, 107-122쪽.

정미숙, 「성별화된 빈곤과 사회적 배제: 저소득 여성가구주의 빈곤대응 방식을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제25권 2호, 한국여성연구원, 2008, 3-44쪽.

장현섭, 「한국 사회는 핵가족화하고 있는가」,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1993, 191-195쪽.

인터넷 자료

강승연, 「[法 톡!] 대법원, 동성애 다룬 소설 '표절' 첫 판결…소설 속 내용은?」, 『헤럴드경제』, 2015.03.27., https://biz.heraldcorp.com/arti-

cle/434312, 최종접속일: 2026.06.30.
강은영, “이혼의 조건……..”, 2002.08.30., https://bit.ly/4b2DS2Z, 최종접속일: 2026.06.30.
강주일,「신민아, 주지훈, 이종석… ‘누적 조회수 26억회’ 재혼황후, 라인업 공개」,『스포츠경향』, 2025.04.14., https://bit.ly/4riDfqT, 최종접속일: 2026.06.30.
떠도는 유령, “자작나무님의 “이혼의 조건”이 남긴 것”, 2003.01.22., https://bit.ly/4bsitQA, 최종접속일: 2026.06.30.
루화, “[감상]이혼의 조건-자작나무작”, 2002.07.24., https://bit.ly/4b6drbd, 최종접속일: 2026.06.30.
박씨, “로맨스소설추천”, 2009.08.09., https://bit.ly/4d07v6c, 최종접속일: 2026.06.30.
사과맛변기, “[칼럼] 너에게 BL을 알려주마-(2) 용어편”, 2010.03.24., https://bbs.ruliweb.com/family/211/board/300074/read/10398957, 최종접속일: 2026.06.30.
세잎클로버 나미, “절애 (김다인/현대물로맨스-이북)”, 2011.08.03., https://blog.naver.com/myunicorn/120136004612, 최종접속일: 2026.06.30.
연휘선, “주지훈, 신민아 집착 후회남 되나 “‘재혼황후’ 제안 받고 검토 중” [종합]”,『OSEN』 2025.01.24., https://bit.ly/4swI2Gc, 최종접속일: 2026.06.30.
이명옥, “이혼의 조건, 재혼의 법칙을 읽고난후…”, 2004.01.27., https://bit.ly/3ORiRzC, 최종접속일: 2026.06.30.
이윤정, “누적 조회수 7천만 건… 인기 웹소설 ‘재혼 황후’ 연재 마무리”,『이데일리』, 2020.05.06., https://bit.ly/3ONKolr, 최종접속일: 2026.06.30.
출판정책연구실, “[조사연구 2024-04] 2024년 웹소설 산업 현황 실태조사”, 2025.04.03., https://www.kpipa.or.kr/p/g3_1/143, 최종접속일: 2026.06.30.
하나요메, “추천하는 후회공 소설 1”, 2010.6.13., https://m.blog.naver.com/hanayome82/140108703098, 최종접속일: 2026.06.30.

seoharan, “[비평]이지환님의 ‘이혼의 조건’-우리와 남을 재는 기준”, 2003.04.07., https://bit.ly/4bs6UsM, 최종접속일: 2026.06.30.
“[동호회를 찾아서] 천리안 로맨스 소설 ‘천일야화’”, 『한국경제』, 2000.07.1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0257507?sid=101, 최종접속일: 2026.06.30.
“발닦개형 후회공: 회피형 후회공”, 2018.04.06., https://www.dmitory.com/novel/17458953, 최종접속일: 2026.06.30.
“발닦개 남주 너무 좋아ㅠ(목록유)”, 2020.01.31., https://www.dmitory.com/novel/108997229, 최종접속일: 2026.06.30.
“업보에 따라서 나눠본 후회남 모음”, 2021.10.25., https://theqoo.net/romancehl/2214790859, 최종접속일: 2026.06.30.
“TUDUM BY NETFLIX”, https://www.netflix.com/tudum/top10/tv-non-english?week=2025-02-02, 최종접속일: 2026.06.30.
“yes24”,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89353, 최종접속일: 2026.06.30.

Abstract

The ‘Regretful Male’ and Women’s Revenge Narratives in Early 2000s Korean Romance Novels

Son Jin-won

This paper analyzes the character archetype of the ‘Regretful Male’ and female revenge narratives found in Korean romance novels of the early 2000s. ‘Regretful Male’ romances did not merely depict the reunion of the male and female protagonists as a genre convention; rather, they addressed the sociocultural vulnerability of married women at the time. For married women in the 2000s—who had no choice but to internalize familism and accept their identity as wives burdened with various obligations—the male protagonist’s betrayal was perceived as more than just a breach of trust in a personal relationship; it was seen as undermining the vulnerable status of women.

This paper first explores the anger of the female protagonist in Lee Ji-hwan’s The

Conditions of Divorce (2002), the work that brought the ‘Regretful Male’ archetype into the spotlight. This work expressed the woman’s anger through the act of divorce and resonated with readers of the time. This novel expressed the woman’s anger through the act of divorce and resonated strongly with readers of the time. In contrast, ‘Regretful Male’ romances that emerged after *The Conditions of Divorce* strategically concealed this anger and transform it into a narrative of regaining the wife’s status through forgiveness. Drawing on Martha Nussbaum’s analysis to examine the meaning of this anger and forgiveness, the process of forgiveness is a controlling act that demands self-deprecating repentance from the wrongdoer, thereby standing in contrast to the ethics of revenge. In other words, ‘Regretful Male’ romances were narratives of female revenge that gave voice to the desires of married women of that era to have their dedication as wives within the family properly recognized and to reclaim control over their husbands.

Key words: Romance, Regretful male, Women’s revenge story, Web novel

논문제출 / 2026.06.30.
심사완료 / 2026.08.04.
게재확정 / 2026.08.06.